

'저작권 강의' 겨우 9개 대학

문공부서 실태조사... 독립강좌 설치 권장키로

새 저작권법이 시행된지 1년. '지적 소유권 보호'라는 생소한 도전에 직면,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재빠른 변신과 의식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일반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감감하다.

저작권 인식의 확산을 위해서는 대학에서의 학문적 이론정립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정작 저작권을 강의하는 대학 학과는 전국에 9개 학과 뿐이며, 그나마도 대부분이 다른 과목중의 일부로서 '개론'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같은 실정은 문공부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저작권 관련분야의 학과(법과, 도서관학과, 연극영화과, 신문방송학과)가 있는 전국 59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저작권강의 실태조사'에서 드러났다. 설문형식의 조사에 응답한 대학은 53개. 그중 법학과가 설치돼 있는 대학이 52개, 신문방송학과는 17개, 도서관학과는 19개, 연극영화과는 5개로 저작권 관련학과는 모두 94개에 이른다.

16개 대학서 강좌설치 계획

이 조사에 따르면 현재 저작권을 강의하고 있는 대학은 서울대·고려대·수원대·효성여대·서강대·인하대·경남대·전남대·경북대 등 9개 대학이다. 그중 서울대와 고려

현재 저작권을 강의하는 대학은

전국에 9개 학과 뿐이며, 그나마도

대부분이 다른 과목의 일부로서

'개론'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저작권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공교수의 양성, 국내외 자료의 보급,

교재의 개발이 시급하다.

대는 독립강좌로 설치하고 있고, 나머지 7개 대학은 다른 강좌의 일부로 강의하고 있다.

이밖에 안동대·영남대·성균관대·광운대·국민대·강원대·연세대·단국대·대구대·인천대·관동대·서울시립대 등 12개 대학이 저작권강좌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동국대·이화여대·경상대·청주대 등 4개 대학도 강좌설치를 고려중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저작권에 대한 연구도 미미해서, 현재 고려대·영남대·국민대·서울대·연세대·명지대·전남대·서울시립대 등 8개 대학에서 저작권연구가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

한편 저작권강좌를 설치하고 있는 9개 대학의 경우, 학과별로는 서울대·고려대·인

하대가 법학과, 수원대·서강대·경북대는 신문방송학과, 효성여대·전남대는 연극영화과, 인하대는 교양과정에서 저작권 강의가 실시되는 등 들쭉날쭉하다. 그뿐 아니라 담당교수의 전공도 법학 2명, 신문방송학 2명, 도서관학 2명, 외부인사 1명, 기타 2명으로 일관성이 없어 아직까지 저작권의 학문적 위치가 분명치 않음을 말해준다.

전공교수 없고 교재도 빈곤

대학교에 저작권강좌를 설치하기가 가장 곤란한 이유로는, 첫째 졸업이수학점이 제한되어 있는 탓에 저작권을 독립된 과목(3학점)으로 개설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가장 많았고(9개 대학), 그 다음으로는 전문분야 교수의 부재, 적절한 교재의 빈곤, 학생들의 관심 부족 등이 제시되었다.

또 각 대학들은 저작권 강의를 위해 저작권 관련 국내외 자료와 문헌을 제공해 주기를 희망(11개 대학)하는가 하면, 연구개발비의 지원, 일정기간의 연구과정 설치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

아 물론, 현재 대학의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나 교육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가운데서도 86년 이전까지는 3개 대학에 불과했던 저작권 강의가 현재는 9개 대학으로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 16개 대학이 새로 저작권강좌 설치를 계획 또는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은, 저작권법의 개정과 세계저작권협약 가입에 따른 저작권에 대한 관심증대를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저작권 전문가의 양성과 저작권개념의 확산을 위해 필수적인 대학의 저작권강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①저작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②저작권에 관련된 국내외의 자료 및 문헌을 적극적으로 발간 배포하며 ③저작권연구 붐을 조성, 저작권 전공교수의 양성과 적절한 교재의 개발이 시급하다는 것이 이번 조사에서 얻어진 결론이다.

문공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저작권 교재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저작권에 관한 국내외의 문헌을 정리, 각 대학에 배포하는 한편, 문공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각 대학에 저작권의 독립적인 강좌를 설치케 하거나 기존의 다른 강좌에 저작권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마침내 完成한 감동과 기쁨의力作!



이상한 性心理의 奇行,
끝없는 사랑의 갈등!!

이 소설은 인간의 본성속에 은밀하게 감춰져 있는 새디즘과 매저키즘, 이상적인 성심리와 기행(奇行), 애욕과 애증 등이 끊임없이 부딪히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획득하고자 하는 사랑의 의미를 질문하고 있다. 조선작이 단단한 문장으로 70년대의 우리사회를 충실히 그린 조선작이 도시적 감성으로 현대인의 고립감과 그것의 위험과 풀림을 흥미롭게 전개시켜 나가는 80년대의 새로운 풍속도라 불릴 것이다.
—문학평론가 鄭奎雄

전 3권 完結!!

우수의 憂愁 趙善作의 小説

趙善作

장편소설

제 ① 권 하나의 곤혹

제 ② 권 이상한 심리

제 ③ 권 운명의 여로

국판/호화장정/각권 값 3,000원
전국유명서점에 있습니다.

宇石 서울 종로구 평동20의9
737-7611 (대)